

# 화순군 “연둔리 숲정에서 봄의 절정 만끽하세요”

16-19일 나흘 간 봄꽃 축제 개최  
유채꽃·물명 등 관람·휴식 동시에  
‘김삿갓 의상대여 체험’ 부스 운영



화순군이 산림 생태 자원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2026 연둔리 숲정에서 봄꽃 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이 나무이를 즐기는 모습.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지역 고유의 산림 생태 자원과 역사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체험 축제를 가동하며, 신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특산물 소비 촉진에 나선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동북면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화순 11경 중 제7경으로 지정된 연둔리 숲정 일원에서 '2026 연둔리 숲정에서 봄꽃 축제'를 개최하고 관광객을 맞이한다.

이번 축제는 단순한 경관 관람 위주의 일회성 행사를 탈피하고, 방문객이 지역에 장시간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명소 육성'에 정책적 방점을 두고 기획됐다.

군은 동북면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수양버들과 유채꽃 군락지를 핵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맞춤형 특화 공간을 구축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프라는 동북면 물길을 따라 조성된 '물명존'과 '피크닉존'으로, 관광객들이

행사장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에 피크닉 세트를 전면 무상으로 대여해 자연경관 관람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며, 청년층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린다는 복안

이다.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연계 콘텐츠도 핵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인근 중명지

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김삿갓 의상 대여 체험' 부스를 운영해 방문객이 전통 의상을 입고 행사장과 유채꽃 군락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색적인 체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외부에는 시각적 전시물과 지역 소득 창출을 위한 연계 부스가 집중 배치된다.

방문객의 주요 동선을 따라 동북 사랑 사진전과 숯대, 바람개비 군락 전시가 상시 진행되며, 행사장 메인 구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부스가 운영돼 실질적인 지역 경제 수익 창출을 도모한다.

이밖에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말에는 다채로운 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인 관광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 사진을 즉석에서 인쇄해 주는 '숲정 사진관'이 운영되며, '행운의 김삿갓 키링 만들기', '유채꽃 마그넷 만들기' 등 체험형 부스와 주말 오후 2시에는 행사장 일대에서 버스킹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최종대 화순군 동북면장은 "생태 자원과 김삿갓 종명지 등 지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을 융합해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축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 목표"라며 "방문객 체류 시간 연장과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유도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대 기자

## 민주 구례군수 경선 오늘부터 이틀간 결선 '주목'

김순호 現군수 vs 장길선 現의장  
경선 탈락자 지지층 표심이 변수



김순호 장길선

6·3 지방선거 구례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김순호 현 군수와 장길선 현 군의회 의장 간 결선투표로 압축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발표한 1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김순호·장길선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 투표는 14-15일 이틀간 국민참여경선(관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진다. 결선 결과는 오는 16일 발표 예정이다.

3선 도전에 나선 김 후보는 행정의 연속성·조직력을 앞세워 지지세를 굳히기에 주력하고 있

다. 이에 맞서 장 후보는 인물 교체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동수·홍병만 예비후보 지지층의 표심이 어떤 후보로 이동하느냐 여부가 결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14년 만에 구례에서 개막한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도 결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전남체전 운영과 행정력에 대한 평가가 결선 표심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또한 인구 소멸 대응과 농어촌 기본 소득 등 정책 실효성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관광 산업 고도화 정책과 고령화 지역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실행 로드맵 제시 여부가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후보는 결선 투표가 끝나는 15일까지 전남체전 현장과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층 흡수와 관리당원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체전 열기와 경선 막바지 일정이 맞물리면서 지역 민심이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3선 연임이나,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냐를 놓고 유권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례=김세중 기자

## 순천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지원

오늘부터 취업연계 수강생 모집

순천시가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13일 순천시에 따르면 14일부터 취업 연계형 전문 교육 과정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국

가자격증 대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동물의 행동 분석과 평가, 훈련에 대한 전문 기술을 갖춘 인력으로 지난 2024년 국가 자격으로 전환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10일부터 8월23일까지 16주간 매주 일요일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반려동물 행동학 및 관리학 등

필수 이로부터 실제 자격증 시험장 코스 실습까지 합격에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촘촘하게 구성됐다.

수강생들이 반려견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고 직접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실무 능력 배양에 교육의 중점을 뒀다.

순천시 관계자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 교육을 넘어 배출된 전문 인력들이 지역 내 관련 산업 일자리 매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 고흥군, 10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아트살롱·아트바캉스 등 3개 테마

고흥군은 지역 내 자연 경관과 인문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나선다.

13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군 전역에서 전남문화재단 등과 연계한 '2026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대 특화 브랜드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4월 한달간 매주 수요일, 5-10월은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과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고흥아트살

롱', '고흥아트랜드', '고흥아트바캉스' 등 3개 테마로 구성됐다.

매월 첫째주 수요일 열리는 아트살롱은 지역 명소 연계 인문 강연과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셋째주 수요일의 아트랜드는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장애인, 먼 단위 거주자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 공연으로 꾸며진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가족 단위 융복합 예술 체험인 아트바캉스가 상시 열려 전통 인형 및 해양 쓰레기 악기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주성학 기자

여수소방, 소방대원 정신건강 지원  
6월30일까지 '마음안심버스' 운영

여수소방서가 재난 현장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과 직무 소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심리 치유를 돕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추진한다.

13일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여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연계해 지난 8월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2026년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원들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우울증 선별검사(PHQ-9)와 울니핏 장비를 활용한 스트레스 정밀 측정을 병행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대1 맞춤형 상담과 치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신건강 전문 기관 연계 및 소견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며,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조직 내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여수=김진선 기자

## 담양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동산치과의원·지도위원協 MOU  
의료 지원·맞춤형 보호 연계 활동



유기적으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담양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탈선 예방을 위해 민·관 의료 및 보호 역량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 안전망을 가동한다.

13일 담양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동산치과의원,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와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위기 청소년 발 굴부터 맞춤형 의료 지원, 사후 보호 관리에 이르는 원스톱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동산치과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구강 검진 및 맞춤형 치료 진료를 무상 지원하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지역 내 현장 중심의 선도 활동을 전담해 탈선 비행을 예방한다.

또한 지원센터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 대상 자를 직접 발굴하고 각 기관의 제반 서비스를

이천일 동산치과의원 원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구강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 체결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행원 청소년지도위원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꿀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장흥군, 고품질 벼 '안전 육묘' 집중 지도

발아율 80% 이상 종자만 사용  
온탕·약제 소독 온도 관리 철저

장흥군은 13일 "본격적인 벼 파종 시기를 앞두고 고품질 쌀 생산과 기후 변화에 따른 병해충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종자 소독 및 안전 육묘 관리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등숙기(9-10월)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벼 종자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0개 읍·면에 35명 규모의 현장기술지원단을 투입해 밀착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자가 채종 종자의 육묘 실패를 막기 위해 소금물 가리기를 거쳐 발아율이 80% 이상인 법씨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발아율 검사는 농가 자체 검사 또는 농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키다리병 등 종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도 필수로, 온탕 소독은 60도 물에 10분간 담근 후 찬물에 10분간 식혀야 하며, 약제 소독은 30-32도에서 1-2일간 진행한다.

발아가 지연되는 종자는 약제 소독 전 15도 찬 물에 1-2일간 침종하면 균일한 싹튀우기를 유도할 수 있으며, 파종은 30-32도 물에 1-2일 담가 80% 이상 싹이 1-2mm 났을 때 실시한다.

모타리는 평균기온 15도 이상일 때 실시하고, 4-5월 저온 예보 시 파종을 연기해야 모잘록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육묘 상자는 파종 후 3-5일 간 25-30도를 유지하고, 녹화기 20-25도, 경화기 15-25도로 단계별 온도 관리를 거쳐야 한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따라 올해는 파종 시기를 예년보다 다소 늦춰 육묘 기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싹튀우기와 적정 온도 관리 등 안전 육묘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장흥=노홍렬 기자